

## 금타, 함평에 새 공장 지어 단계 이전 검토

‘화재 수습 로드맵’ 곧 발표  
재정문제로 일괄 이전은 부담  
광주 1공장 가동하고  
함평 정련 공정 우선 신축  
로드맵 발표 전 합의 노사 동참



16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현장에서 잔해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두 달 전 대형 화재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조만간 ‘화재 수습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함평 새 공장 신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데다, 사측과 노조가 함평 공장 신축 이전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새 공장 신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호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노조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이날 중 발표할 로드맵에서는 함평 공장 신축 이전과 광주공장 신설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단계적인 함평 공장 신축 이전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회사 내 자금 문제 등으로 당장 1조 2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함평 공장 전면 신축은 어렵고, 일단 화재 피해가 없는 광주공장 1공장을 가동하는 한편 함평 공장 부지에는 천연고무, 카본블랙 등 원재료를 혼합해 타이어용 고무로 가공하는 정련 공정을 우선 설치·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조 역시 화재 피해가 없는 광주공장 1공장 가동을 요구한 상태다.

1공장은 화재 발생 전까지 하루 4000여본(개)의 타이어를 생산해 왔으며, 화재로 전소된 2공장

을 포함한 광주공장은 하루 총 3만여본을 생산해 왔다.

다만 1공장을 가동하더라도 정련 공정이 화재로 전소된 탓에 외주를 맡겨야만 공장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단 함평 공장 부지에 정련 공정을 우선 신축해 1공장과 병행 가동하고, 추후 자금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계획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계획은 광주공장 화재 조사 지연으로 보험금 수령이 늦어지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도 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일단 사측에 1공장을 가동하

되, 생산량을 하루 1만본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타이어는 1공장 운영과 함께 함평에 정련 공정 시설을 신축할 경우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일정량의 타이어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형 태양광 RE100’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확충

GGM 등 기업들에 제공

광주시가 ‘광주형 RE100’ (기업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에서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10일 대통령실이

서남권에 RE100 산단을 조성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광주시의 청사진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RE100 체계를 구축해 지산지소(地産地消·전기가 만들어진 곳에서 전기 소비) 에너지 자립을 시행할 계획이다.

광주 RE100체계의 핵심은 태양열발전이다. 2023년 기준 광주시 태양광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364MW로 8개 특·광역시 중 2번째(대구 420MW·부산 326MW·서울 248MW·인천 264MW·울산 165MW·대전 131MW·세종 107MW)로 높다. 여기에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대폭 확충해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자체 생산한 전력은 GGM 등지에 공급된다.

시가 선제적으로 광주형 RE100을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국제산업 기조의 영향이 크다.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기업이 RE100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들도 RE100에 대응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전날 정부가 중단됐던 호남권의 전력계통(발전

소, 변전소, 송전시설 등 전력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공급까지 연결된 네트워크)을 연말까지 재개하기로 해 전남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확한 시점과 전력량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광주형 RE100을 서두르게 된 배경이다.

지난 2023년 기준 광주시 전체 전력 사용량 9083GWh 중 광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841GWh로 전력 자립률은 9.3%에 달한다.

박준식 광주시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표준인 RE100을 미리 준비해야 지역기업들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면서 “RE100사업단 등을 꾸려 광주형 RE100 체계를 꼼꼼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 구속적부심 내일 열려  
‘구인 거부’ 윤, 출석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3면〉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합의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팀은 이에 맞서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를 무력화한 점 등도 지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병해충 방제 힘드네 농산물 수입 확대라니... ▶6면

KIA 나성범 복귀 “2연패 달성 최선”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제주도 휴양림 명소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